이스라엘, 가자지구 UN 학교 또 폭격…100여명 사상

화력발전소도 파괴… 교전 이후 최대 포격

'23일째 공습' 1262명 사망…난민 20만명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는 가자지구 내 한 유엔학교에 또다시 탱크 포격을 가해 10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AP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께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해 있는 제발리야 난민캠프 유엔학교에 포탄이 날아들었다.

이 포격으로 최소 16명이 숨지고 90명이 다쳤다고 가자 보건 당국은 밝혔다.

이 학교 교장 파예즈 아부 다예는 포탄 여러 발이 몇 분 간격으로 교실 두 곳과 목욕탕에 떨어졌으며 이 폭발로 한 교실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교실 벽에도 큰 구멍이 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측은 이번 포격에 아직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피해 현재 집을 떠나 유엔학교로 대피한 가자 난민은 20만명에 달한다고 유엔은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가자 북부 베이트하눈에서는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가 공격을 받아 유엔 직원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전날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이 시작한 이후 가자에서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8일 공습 개시 이후 최대 규모로 75곳을 겨냥해 공습과 포격을 가했고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인 128명이 숨졌다.

특히 가자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가 이스라엘군의 탱크 포격으로 완전히 파괴돼 가자 전체가 암흑에 휩싸이게 됐다. 외부의 전력공급선이 대부분 끊긴 상태에서 가자지구 전력 공급의 3분의 2를 담당해온 이 발전소마저 가동을 멈추면서 가자 주민의 고통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23일째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최소 1262명이 숨지고 71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군인 53명과 민간인 3명 등 56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3주간 공방 가운데 최대 공격을 감행한 29일(현지시간)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 포격으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날 하루동안 최소 100명이 숨졌다고 가자 보건부가 전했다. 가자시티의 난민촌과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의 자택, 알아크사 방송국, 재무부 청사, 발전소 등이 공격을 받았다. /연합뉴스

中 저우융캉 부패 조사 공식화

건국 후 최고지도부 일원 첫 처벌 가능성

중국이 그동안 사법처리설이 꾸준히 제기돼온 저우융캉(周永康·사진)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고지도부의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은 이번 사건이 중국 안팎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미 '성역'을 넘어선 반부패 칼날이 또 다른 전직 지도자를 향할지도 주목된다.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 중국 관영언론들은 지난 29일 오후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 문제와 관련한 사건을 정식 접수해 심사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부 중국언론은 저우융캉 아들의 저우빈(周濱)도 불법영업 혐의 등으로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저우융캉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들어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중국당국이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체제는 지난 1년 남짓 저우융캉의 양대 지역·산업 인맥으로 분류돼온 '쓰촨방'(四川幇·저우융캉이 쓰촨성 당서기로 근무할 때 그를 따르던 세력)과 '석유방'(石油幇·저우융캉과 인맥을 형성하는 석유기업 고위간부 출신의 정치세력) 고위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잡아들이며 저우융캉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시주석의 반부패 개혁의 칼끝에는 저우융캉이 앉아있다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제기돼왔다.

그동안 중화권 언론을 통해 제기된 혐의를 종합해보면, 그의 부정부패 행위는 뇌물수수에서 폭력조직과의 결탁, 살인사건 연루, 복잡한 여자문제 등을 넘나든다.

특히 중화권 언론들은 그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와 공모해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해온 상황이어서 소문의 진위가 확인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에볼라 공포' 전 세계로 확산

서아프리카 환자 치료하던 의사 잇따라 사망

"바이러스 퍼질라" 각국 항공기 운항 중단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들이 연달아 에볼라에 감염돼 사망하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일부 항공사가 발병국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는 등 에볼라 공포가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시에라리온 당국은 현지에서 에볼라 치료를 담당해온 고위직 의사 셰이크 우마르 칸이 29일(현지시간) 에볼라로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1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며 '국민적 영웅'이라고까지 불렸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입원했다.

현재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망자는 672명까지 치솟았다.

전날 라이베리아에서도 치료 중 에볼라에 감염된 의사가 끝내 숨졌다. 또 미국 의료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 소속 미국인 의사와 여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단체와 함께 라이베리아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자국으로 돌아온 한 캐나다 의사도 감염 가능성에 스스로 격리조치를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 단체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이들을 모두 라이베리아에서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발병국 현지에선 바이러스 확산 방지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라이베리아는 축구경기와 공공집회를 전면 중단하고 국경까지 폐쇄했다.

그러나 항공편을 통해 에볼라가 다른 국가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공포 역시 확산하고 있다.

특히 25일 미국 국적의 한 라이베리아 관료가 미국 가족 방문을 앞두고 에볼라로 숨지며 바이러스가 북미 등 타 대륙으로 상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에볼라 발병국으로의 항공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라이베리아 감염자를 나이지리아로 태워 보내 나이지리아에 에볼라를 확산시킨 토고 ASKY 항공사는 이미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행 항공편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야간·주말·공휴일 병원행 심근경색 환자 사망위험 ⬆

야간이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심근경색 환자는 평일 진료시간에 도착한 환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노스쇼어(NorthShore) 대학병원 심혈관연구소의 호르헤 사우세도 박사가 2007~2010년 사이에 전국 447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 2만7000여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에 이송된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평일 진료시간에 실려온 환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우세도 박사는 밝혔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 도착한 환자는 평일 주간에 도착한 환자에 비해 막힌 관상동맥 혈관을 뚫는 치료법인 혈관성형술을 받는 시간이 평균 16분 늦었다.

/연합뉴스